

치과환자의 치과위생사 복장에 대한 선호도 연구

유미선[†] · 이지연¹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¹강릉영동대학 치위생과

A Study on the Dental Patient's Preference of Dental Hygienists' Attire

Mi-Sun Yu[†] and Ji-Youn Lee¹

Department of Preventive and Public Health Dentistry, College of Dentistry, Wonkwang University, Korea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angneung Yeongdong College,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dental hygienist's stable and comfortable attire during dental patients treatment, and to enhance dental hygienist's image. 486 adult patients who visited local dental clinics or centers in three cities of Jeonbuk province, Jeonju, Iksan and Gunsan were surveyed by self developed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percentage and chi-square test (χ^2 -test), using SPSS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Respondents preferred two-piece skirt (39.1%), the face with whole make-up (45.9%).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gender ($p<0.01$). 2. 36.2% of respondents preferred pink-colored uniforms. 3. Respondents preferred sandal (44.2%),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gender ($p<0.01$, $p<0.05$). 4. In terms of indication or identification for dental hygienists, 60.7% of respondents preferred nameplat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p<0.05$). 5. 75.9% of respondents thought that favorite uniform and costumes that patients prefer could help them feel easy.

Key words Attire, Preference, Dental hygienist, Dental patient

서 론

과학기술의 발달, 고도의 경제성장과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사회 변화에 따라 국민의 구강건강에 대한 요구가 급진적으로 증가하여 수준 높은 전문화와 세분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업무도 급변하는 사회제도에 적응하면서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교육수준도 향상되었다¹⁾. 또한 치의학이 구강병의 치료와 더불어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됨에 따라 공중구강보건활동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치과의사만으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전문지식과 기술을 모두 겸비한 전문인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더욱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²⁾.

치과위생사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치과의료기관 내원시 처음으로 접하는 의료진이 치과위생사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환자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치과위생사와 첫 대면 시 형성된 이미지는 전문적으로서의 치위생직 성장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눈에 보이는 외관에 의

해 첫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치과위생사는 기능적인 면과 함께 청결하고 깔끔한 복장과 몸가짐이 요구된다.

외모란 의복 뿐 아니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피부미용, 액세서리, 신발 등 시각적으로 지각된 신체와 신체의 모든 변형에 의해 창조되어 혼합된 이미지라 볼 수 있고, 시각적 이미지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사고과정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³⁾ 이러한 외모와 의복은 인상을 형성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사람들은 내적·외적으로 자신의 개성에 맞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화를 고려한 질서 있는 연출을 실현하려고 하지만 때와 장소, 직업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한다⁴⁾. 특히 병원의 경우 신체적,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치과위생사는 이러한 환자의 심리적인 면까지 고려한 외모나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저자는 치과환자가 선호하는 치과위생사 복장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치과위생사의 이미지 향상과 동시에 환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편안하게 보일 수 있는 복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전라북도 전주, 익산, 군산시의 14개 치과의

[†]Corresponding author
Tel: 063-850-6854
E-mail: misuny3273@hanmail.net

원에 내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3년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였다. 치과위생사가 직접 환자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전체 500부 중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한 486부를 분석자료로 하였다

2.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있어서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복장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 χ^2 (Chi-square)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별 분포는 29세 이하가 44.7%, 30-39세는 30.0%, 40-49세는 18.7%, 50세 이상은 6.6% 순으로 29세 이하가 가장 많게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자가 40.1%, 여자는 59.9%로 여자가 많았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연 령	29세 이하	217	44.7
	30-39세	146	30.0
	40-49세	91	18.7
	50세 이상	32	6.6
성 별	남자	195	40.1
	여자	291	59.9
합 계	486	100.0	

표 2. 의복형태에 대한 선호도

[단위: 명(%)]

구 분	의 복 형 태						P
	원피스치마	투피스치마	바지류	깔끔한 일상복	기타	합계	
연 령	29세 이하	31(14.3)	84(38.7)	88(40.6)	13(6.0)	1(0.4)	217(44.7)
	30-39세	27(18.5)	58(39.7)	45(30.8)	14(9.6)	2(1.4)	146(30.0)
	40-49세	23(25.3)	34(37.4)	28(30.8)	4(4.4)	2(2.1)	91(18.7)
	50세 이상	8(25.0)	14(43.8)	5(15.6)	5(15.6)	-	32(6.6)
성 별	남자	42(21.5)	93(47.7)	44(22.6)	16(8.2)	-	195(40.1)
	여자	47(16.2)	97(33.3)	122(41.9)	20(6.9)	5(1.7)	291(59.9)
합 계	89(18.3)	190(39.1)	166(34.2)	36(7.4)	5(1.0)	486(100.0)	

** : p<0.01

표 3. 의복색상에 대한 선호도

[단위: 명(%)]

구 분	의 복 색 상					P	
	흰색	노랑색계열	분홍색계열	푸른색계열	기타		
연 령	29세 이하	31(14.3)	29(13.4)	78(35.9)	74(34.1)	5(2.3)	217(44.7)
	30-39세	22(15.1)	29(19.9)	53(36.3)	41(28.1)	1(0.6)	146(30.0)
	40-49세	23(25.2)	13(14.3)	31(34.1)	24(26.4)	-	91(18.7)
	50세 이상	5(15.5)	3(9.4)	14(43.8)	10(31.3)	-	32(6.6)
성 별	남자	38(19.5)	30(15.4)	67(34.4)	57(29.2)	3(1.5)	195(40.1)
	여자	43(14.8)	44(15.1)	109(37.5)	92(31.6)	3(1.0)	291(59.9)
합 계	81(16.7)	74(15.2)	176(36.2)	149(30.7)	6(1.2)	486(100.0)	

2. 의복형태에 대한 선호도

전체 환자들의 39.1%가 투피스치마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바지류가 34.2%, 원피스치마가 18.3%, 깔끔한 일상복이 7.4%, 기타 1.0%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볼 때 29세 이하 환자들의 40.6%가 바지류를 가장 선호하였고 다른 연령대의 환자들은 투피스치마를 선호하였으며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는 남자 환자들의 47.7%가 투피스치마를 가장 선호하는데 반해 여자 환자들의 41.9%가 바지류를 가장 선호하여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표 2).

3. 의복색상에 대한 선호도

전체 36.2%의 환자들이 분홍색 계열의 의복색상을 가장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푸른색 계열 30.7%, 흰색 16.7%, 노랑색 계열 15.2%, 기타 1.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성별 모든 층에서 분홍색 계열의 색상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표 3).

4. 신발에 대한 선호도

환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발 선호도는 표 4와 같다. 전체 환자들의 44.2%가 샌들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단화 26.3%, 슬리퍼 21.0%, 운동화 6.2%, 기타 2.3%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p<0.01) 연령이 증가할수록 운동화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젊은 층일수록 슬리퍼를 선호하고 있었다. 성별 또한 남자 환자들의 38.5%가 샌들을, 30.8%가 단화를 선호한데 반해 여자 환자들은 샌들 48.1%, 단화 23.4%로 선호하고 있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표 4. 신발에 대한 선호도

[단위: 명(%)]

구 분	신 발						P	
	샌들	슬리퍼	운동화	단화	기타	합계		
연령	29세 이하	75(34.6)	69(31.8)	12(5.5)	56(25.8)	5(2.3)	217(44.7)	0.000**
	30-39세	78(53.4)	21(14.4)	7(4.8)	34(23.3)	6(4.1)	146(30.0)	
	40-49세	47(51.6)	10(11.0)	5(5.5)	29(31.9)	-	91(18.7)	
	50세 이상	15(46.9)	2(6.2)	6(18.8)	9(28.1)	-	32(6.6)	
성별	남자	75(38.5)	38(19.5)	19(9.7)	60(30.8)	3(1.5)	195(40.1)	0.013*
	여자	140(48.1)	64(22.0)	11(3.8)	68(23.4)	8(2.7)	291(59.9)	
합 계		215(44.2)	102(21.0)	30(6.2)	128(26.3)	11(2.3)	486(100.0)	

* : p<0.05 ** : p<0.01

5. 머리스타일에 대한 선호도

전체 환자들의 43.6%가 뒤로 묶은 머리를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올린머리는 27.0%, 단발머리는 9.9%, 컷트 7.6%, 긴생머리 5.8%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뒤로 묶은 머리와 컷트 선호도가 높아졌는데 반해 단발머리와 긴생머리는 연령 증가에 따라 선호도가 감소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성별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p<0.01) 남자 환자들이 뒤로 묶은 머리 41.0%, 올린머리 25.1%, 긴생머리 10.9%, 단발머리 9.7%, 컷트 9.2% 순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여자 환자들은 뒤로 묶은 머리 45.4%, 올린머리 28.2%, 단발머리 10.0%, 컷트 6.5%, 긴생머리 2.3% 순이었다(표 5).

6. 화장정도에 대한 선호도

전체 환자들의 45.9%가 전체화장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31.3%가 부분화장을, 21.2%가 기초화장을, 나머지 1.6%가 전혀 화장하지 않은 얼굴을 선호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각 연령층 모두 전체화장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은 남자 환자들의 36.9%가 기초화장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부분화장 33.8%, 전체화장 27.2% 순으로 선호하는데 반해 여자 환자들의 58.4%가 전체화장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고 다음이 부분화장 29.5%, 기초화장 10.7% 순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표 6).

7. 표시방법에 대한 선호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치과위생사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선호도는 표 7과 같다.

전체 환자들의 60.7%가 명찰을 가장 선호했으며 다음으로 복장 20.0%, 호칭 11.5%, 캡 3.5%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볼 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p<0.05) 모든 연령층에서

표 5. 머리스타일에 대한 선호도

[단위: 명(%)]

구 분	머 리 스타 일						P		
	올린머리	뒤로묶은 머리	단발머리	컷트	긴생머리	기타		합계	
연령	29세 이하	61(28.1)	91(41.9)	23(10.6)	10(4.6)	17(7.9)	15(6.9)	217(44.7)	0.024*
	30-39세	44(30.1)	62(42.5)	18(12.3)	8(5.5)	6(4.1)	8(5.5)	146(30.0)	
	40-49세	20(22.0)	43(47.3)	5(5.5)	12(13.2)	4(4.3)	7(7.7)	91(18.7)	
	50세 이상	6(18.8)	16(50.0)	2(6.3)	7(21.9)	1(3.0)	-	32(6.6)	
성별	남자	49(25.1)	80(41.0)	19(9.7)	18(9.2)	21(10.9)	8(4.1)	195(40.1)	0.002**
	여자	82(28.2)	132(45.4)	29(10.0)	19(6.5)	7(2.3)	22(7.6)	291(59.9)	
합 계		131(27.0)	212(43.6)	48(9.9)	37(7.6)	28(5.8)	30(6.2)	486(100.0)	

* : p<0.05 ** : p<0.01

표 6. 화장정도에 대한 선호도

[단위: 명(%)]

구 분	화 장 정 도				P		
	기초화장	부분화장	전체화장	전혀안했으면 좋겠다		합계	
연령	29세 이하	39(18.0)	72(33.2)	102(47.0)	4(1.8)	217(44.7)	0.381
	30-39세	29(19.9)	48(32.9)	66(45.2)	3(2.0)	146(30.0)	
	40-49세	27(29.7)	21(23.1)	43(47.2)	-	91(18.7)	
	50세 이상	8(25.0)	11(34.4)	12(37.5)	1(3.1)	32(6.6)	
성별	남자	72(36.9)	66(33.8)	53(27.2)	4(2.1)	195(40.1)	0.000**
	여자	31(10.7)	86(29.5)	170(58.4)	4(1.4)	291(59.9)	
합 계		103(21.2)	152(31.3)	223(45.9)	8(1.6)	486(100.0)	

** : p<0.01

표 7. 표시방법에 대한 선호도

[단위: 명(%)]

구 분	표 시 방 법						P	
	명찰	캡(cap)	복장	호칭	기타	합계		
연령	29세 이하	125(57.6)	9(4.2)	46(21.2)	22(10.1)	15(6.9)	217(44.7)	0.018*
	30-39세	99(67.8)	2(1.4)	20(13.7)	20(13.7)	5(3.4)	146(30.0)	
	40-49세	57(62.6)	5(5.5)	18(19.8)	10(11.0)	1(1.1)	91(18.7)	
	50세 이상	14(43.8)	1(3.1)	13(40.6)	4(12.5)	-	32(6.6)	
성별	남자	111(56.9)	5(2.6)	45(23.1)	23(11.8)	11(5.6)	195(40.1)	0.343
	여자	184(63.2)	12(4.2)	52(17.9)	33(11.3)	10(3.4)	291(59.9)	
합 계		295(60.7)	17(3.5)	97(20.0)	56(11.5)	21(4.3)	486(100.0)	

*: p<0.05

표 8. 선호하는 복장에 대한 안정성

[단위: 명(%)]

구 분	선호 복장의 안정성				P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합계		
연령	29세 이하	161(74.2)	47(21.7)	9(4.1)	217(44.7)	0.851
	30-39세	110(75.3)	31(21.2)	5(3.5)	146(30.0)	
	40-49세	74(81.3)	15(16.5)	2(2.2)	91(18.7)	
	50세 이상	24(75.0)	6(18.8)	2(6.2)	32(6.6)	
성별	남자	150(76.9)	34(17.4)	11(5.7)	195(40.1)	0.094
	여자	219(75.3)	65(22.3)	7(2.4)	291(59.9)	
합 계		369(75.9)	99(20.4)	18(3.7)	486(100.0)	

대부분 명찰을 가장 선호하는데 반해 50세 이상에서는 명찰 43.8%, 복장 40.6%로 거의 비슷하였다. 성별은 남자, 여자 환자들 모두 명찰을 가장 선호하였고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8. 선호하는 복장에 대한 안정성

환자 자신이 선호하는 치과위생사 복장에 대해 자신에게 안정을 주는가에 전체 75.9%의 환자들이 그렇다고 하였으며 20.4%는 보통이다, 3.7%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연령별, 성별 모든 층에서 그렇다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표 8).

고 찰

복장은 그 장소에 조화되고 직업에 따른 기능성이 요구되지만, 대인관계의 직장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보다 좋은 인상을 주는 심미적인 요소로 필요하다^{5,6)}. 그리고 사람들이 의복을 접하였을 때 나타내는 반응, 즉 느낌은 의복에서 표현되는 시각적 이미지에 영향을 받게 된다⁷⁾고 하였다. 또한 의복은 자신을 표현하는 외적 자아로서 자신의 가치와 자기에 대한 정체감을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므로^{8,9)}, 현대사회에서 사회심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복장 및 의복은 환자들이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함에 있어 치과위생사에 대한 호감과 신뢰감을 얻게 되고 환자들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의복형태에 대해 환자들은 투피스치마와 바지류를 가장 선호하였는데 바지류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치과위생사 자신이 바지를 선호하여 많이 입을 추세이기 때문에 보여진 결과로 해석된다.

선호하는 의복색상이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한 위¹⁰⁾의 연구와는 다른 흰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사라지고 분홍색 계열 및 푸른색 계열이 높게 나타났다. 임¹¹⁾은 백의는 검토하여 개선하는 편이 좋다고 하였고, 핑크가 호의를 가질 수 있는 환자의 색이라고 하였다. 또한 색채가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인 면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¹²⁾고 할 때 의복색상은 근심과 공포를 유발하게 하는 흰색의 획일적인 복장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색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머리스타일 선호도에서 환자들은 뒤로 묶은 머리를 가장 선호하였는데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김 등⁴⁾의 연구결과와 같게 나타났다. 이는 환자들이 자신의 기호에 맞는 스타일을 추구하기보다 단정함과 청결함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화장정도에 대해 환자들은 전체화장을 가장 선호하였는데 이 또한 김 등⁴⁾의 연구결과와 같게 나타났다. 하지만 성별로 볼 때 남자환자들은 기초화장, 부분화장, 전체화장 순으로 선호하는데 반해 여자환자들은 전체화장, 부분화장, 기초화장 순으로 선호하였다. 이는 남자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화장품 냄새를 싫어하는 경향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진다. 치과위생사들은 진료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화장이 지워지거나 흐트러질 위험이 있어 화장을 하지 않거나 부분화장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료인으로서의 품위와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정신으로 진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전체화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과위생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은 명찰, 복장, 호칭 순으로 선호하였는데 이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자료¹³⁾ 및 조¹⁴⁾의 연구결과와 같게 나타나 치과위생사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명찰을 착용하여 치과위생사라는 직업을 홍보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환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복장이 자신에게 안정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치과위생사는 개인의 기호나 개성에 맞는 의복 및 복장보다는 환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편안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의복 및 복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복 및 복장 하나 하나까지 정성을 다한다면 다른 의료서비스에서도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만족을 줄 것이라 생각되고 그로 인해 치과위생사의 이미지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요 약

환자들의 치과 치료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편안하게 보일 수 있는 복장을 제시하고 치과위생사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 치과에 내원한 성인환자 486명을 대상으로 2003년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자기기입식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선호하는 의복형태에 대해 39.1%의 환자들이 투피스치마를 가장 선호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복형태 분석결과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2. 의복색상에 대해 36.2%의 환자들이 분홍색 계열을 선호하였다.
3. 선호하는 신발은 44.2%의 환자들이 샌들을 가장 선호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연령($p<0.01$), 성별($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 머리스타일은 환자들의 43.6%가 뒤로 묶은 머리를 가장 선호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연령($p<0.05$), 성별($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5. 선호하는 화장정도는 45.9%의 환자들이 전체화장을 가장 선호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성별($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6. 치과위생사 표시방법으로 환자들의 60.7%가 명찰을 가장

선호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연령($p<0.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7. 자신이 선호하는 복장에 대해 75.9%의 환자들이 자신에게 안정을 준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1. 김경선: 치과위생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업무수행과의 관계연구. 전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 이선미: 치과위생사의 전문직업이미지에 관한 주관성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3. 이성욱, 장미화, 김나희, 류지원: 이미지 메이킹. 수문사, 서울, pp21-28, 2002.
4. 김영일, 김훈, 송희라: 직업에 따른 메이크업 선호도에 관한 연구-간호사. 충청대학논문집, 18: 201-208, 2000.
5. 강부월, 권현숙, 남용옥, 원복연, 이형숙, 장계원 등: 치과위생학개론. 개정판, 청구문화사, 서울, pp159-161, 1998.
6. 권수에, 이은경, 최종명, 김은영: 현대 사회와 의복. 도서출판 하우, 서울, pp143, 2000.
7. 김현주: 의복스타일 이미지 선호와 자기이미지와와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8. 이경희: 남녀대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의복추구혜택 및 의복속성평가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9. 김은애: 가치관과 의복이미지 및 의복디자인 선호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10. 위유민: 소아환자의 치과 의사 복장에 대한 선호도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1. 임만택: 색채심리와 디자인. 테림문화사, 서울, pp217-219, 1996.
12. 이연숙, 이의준: 색지와 색가구를 통해본 취학전 아동의 색채선호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3): 138, 1985.
13.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치과위생사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연구, 1997.
14. 조수희: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Received August 25, 2004; Accepted September 3, 2004)

